

의성 진민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의례적 성격*

김 미 영**

- I. 머리말
- II. 진민사의 역사문화적 변천과정
- III. 진민사 제향의 의례적 성격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의성김씨 문중 사우인 오토산 진민사(鎭民祠)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의례적 성격을 조명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진민사는 의성군 사곡면 토현리 오토산(五土山)에 자리하고 있으며, 제향인물은 의성김씨 증시조 김용비(金龍庇)이다. 그는 고려 명종 때 의성지역에 거주하면서 민란을 평정한 공적을 세워 지역민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진민사는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사당이다. 이처럼 당시 김용비가 세운 공적은 지역공동체를 넘어 국가의 위기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한 추모공간인 진민사 역시 지역성에 기반한 공묘(公廟)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진민사가 의성읍내 관아 근처에 세워졌다는 점을 통해서도 입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5-KFR-1230006)

**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 jako20@hanmail.net

증된다.

이후 진민사는 퇴락과 화재 등으로 수차례에 걸친 중수와 이건 등을 거듭하다가 1868년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읍내에 자리하고 있던 사당이 헐리면서 지금의 오토산으로 옮겨간다. 이때부터 오토산은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의성김씨의 상징적 제의공간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민사의 주도권은 지역사회로부터 의성김씨 문중으로 점차 넘어오게 되는데, 그 기점은 성리학적 가문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16세기 무렵이다. 즉, 문중의식의 강화로 인해 후손들은 혈통적 근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는 결국 진민사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에 반해 의성읍민들 역시 진민사를 공공의 지역유산이 아니라 혈통적 차원에서 인식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특정 성씨의 사묘私廟로 간주하게 된다.

그런데 진민사의 제향인물인 김용비는 의성지역 출신으로, 지역민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난적亂賊을 물리치는 공적을 세웠으며, 또 지역에 뼈를 묻었다. 이는 특정 혈통을 넘어 모든 후대인들의 귀감龜鑑이 될 만한 행적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할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진민사, 나아가 진민사가 자리한 오토산은 단순히 특정 혈통의 뿌리가 깃든 장소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을만한 정신문화를 간직한 공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민사가 특정 가문과 혈통을 넘어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나야할 이유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의성, 사우, 향교, 서원, 향사, 문중

I. 머리말

사우祠宇는 신라·고려시대의 선사先師와 선현先賢의 영정을 모셔둔 ‘사묘祠廟’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향기능을 갖춘 ‘사祠’와 기존의 교육장소로 이용되던 ‘재齋[書齋]가 결합되어 서원이 탄생했다고 한다.¹⁾ 물론 서원의 기원을 통일신라시대의 태학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서원에서는 성리학을 탐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자학이 전래된 고려 말 이후부터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사우는 성리학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있어온 신라·고려시대의 선현숭배사상에 기반하여 건립된 것으로 전한다.²⁾ 사우는 영당影堂·향현사鄉賢祠·세덕사世德祠·향사鄉祠·리사里社·생사당生祠堂·영전影殿 등의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서원이 강학과 제향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반면에 사우祠宇는 제향 기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사우의 주된 건립목적은 귀감적龜鑑的 인물의 제향을 통한 향촌교화이다. 즉 서원의 경우 성성成聖과 성현聖賢이 되는 것을 목표로 그 학덕을 기리고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사당을 건립했다면, 사우는 이른바 사현祀賢의 종교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이 전한다.³⁾

경외京外를 막론하고 도덕과 절의가 있는 자者は 원근의 유생들이 발의하여 사재私財를 털어 생로지향生老之鄉이나 장리지지杖履之地⁴⁾에 원院·사祠를 세워 제사를 지냈다.

- 1) 유홍렬, 「조선에 있어서의 서원의 성립」, 『한국사회사상사논고』, 일조각, 1980, 39쪽.
- 2) 유홍렬, 「조선 사묘祠廟 발생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회사상사논고』, 일조각, 1980, 29쪽.
- 3) 『승정원일기』876, 영조 14년 8월, “兵曹判書朴文秀疏曰, …從古院祠之創, 無論京外, 有道德節義者, 則遠近章甫, 起感而發議, 各捐私財, 或建於其生老之鄉, 或創於其杖履之地, 以時享之 …”.
- 4) 지팡이와 짚신을 끌고 와서 거닐던 곳이라는 뜻으로,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발자취가 남아있는 장소.

위의 내용은 박문수가 영조에게 올린 상소문으로, 사우에서는 ‘행의절열行節節烈’ 곧 충절의 인물을 제향함으로써 향촌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서원은 도학연원道學淵源· 학문종사學問宗師· 공적위국功積爲國· 사절지충死節之忠· 인륜추사표人倫追師表 등의 부합 여부를 가려 제향인물을 선정했는데,⁵⁾ 그중 학문적 업적을 가장 우선하였다. 이처럼 제향인물의 성격과 목적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우는 ‘지역 중심적 의례공간’인 반면에 서원은 ‘인물(학자) 중심적 의례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종법의 정착에 의해 문중의식이 고조되면서 지역성보다는 혈통성이 강화된 사우 건립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즉, 17~18세기 이후 재지사족들은 향촌 내 지위유지를 위해 결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때 문중의 본관지本貫地나 입향지 등에 시조(혹은 현조顯祖)를 모신 사우를 건립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초 지역민들에 의해 건립· 운영되었던 사우 또한 후대로 갈수록 특정 문중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작성되었다. 첫째는 의성김씨 문중 사우인 진민사鎮民祠의 건립배경과 목적을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진민사의 건립과정과 이후의 운영 등에서 향촌사회와 의성김씨 문중이 수행한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진민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는 진민사 제향의 의례적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사우로서의 진민사 제향은 향교의 석전과 서원의 향사에 비해 어떠한 의례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진민사 제향의 특징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II. 진민사의 역사문화적 변천과정

진민사鎮民祠는 의성군 사곡면 토현리 오토산五土山에 자리하고 있다. 제

5) 송공섭, 「이퇴계의 서원교육론 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화』2,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74.

향인물은 의성김씨 첨사공詹事公 김용비金龍庇로, 신라 경순왕의 아들이자 의성김씨 시조인 김석金錫의 9세손이다. 대부분의 성씨들이 그러하듯이 의성김씨 역시 상계上系 인물에 관한 정보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그나마 역사적 기록이 전하는 김용비를 실질적인 시조로 받들고 있는데, 다만 아쉽게도 그의 정확한 생몰과 행적은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1. 지역 공묘公廟로서 건립

김용비의 생몰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고려 명종(1171~1197) 때의 인물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충렬왕 김방경金方慶(1212~1300)의 증손녀가 김용비의 증손부曾孫婦이므로 김방경과 비슷한 연령대일 것이라는 설이다. 이와 관련해 그의 행적을 둘러싼 두 편의 기록이 전한다.

우리의 시조이신 고려 태자첨사부군太子詹事府君 휘諱 용비公龍庇公의 묘소는 경상도 소문현召文縣(의성)의 남쪽 오토산 동향의 산등성에 있다. 부군이 백성들에게 큰 공덕이 있었음을 현인縣人들이 오래도록 감히 잊지 못하여 그곳에 나무를 한다거나 우양牛羊을 치기를 금하고, 또 현중縣中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드리기에 감히 경건히 하지 않음이 없었고, 경내에 있는 노비들에게는 관가에서 그 요역徭役(부역)을 면제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이같이 한 것이 수백 년이 되어 하나의 고사故事로 되었다. 정덕正德 연간에 모재 김안국이 이곳의 관찰사로 부임하였으니 실로 부군府君의 아우인 용필龍弼의 후손이었다. 선생이 부임한 뒤 그 일에 감격하고 그 풍속을 아름답게 여겨 조세를 면제하라는 분부를 내리니 이로부터 고을 사람들이 받들기를 더욱 정성스럽게 하였다. 만력 5년(1577년)에 부군의 후손 이조좌랑 성일誠一이 자손들에게 고하여 각기 재력을 내서 묘소 앞에 비석을 세우려고 하였다. 그 일을 시작하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마무리되자 전前 부교리副校理 우옹宇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기록하여 비석에 새겨 놓도록 하였다.6)(첨사공 묘비문)

6) 金宇頌, <始祖太子詹事府君墓碑>, 『東岡先生文集』17.

백성들에게 큰 공덕功德이 있어 읍인邑人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를 받들었는데 정덕正德(1506~1521) 연간에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1478~1543)이 이곳의 관찰사가 되었다가 그 일에 감동하고 그 풍속을 아름답게 여겨 그들에게 부역을 면하게 하는 명령을 베풀고 진민사鎭民祠라고 묘호廟號를 붙여서 해마다 봄과 가을의 중월仲月에 제수祭需를 관가에서 마련해 주어서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문소지聞韶誌』)⁷⁾

첫 번째 기록은 1577년에 김용비의 11대손인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顥(1540~1603)이 작성한 묘비문이고, 두 번째 기록은 『문소지聞韶誌』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문소지』는 목은 이색의 자손인 음애陰崖 이자李紆(1480~1533)가 의성 현령으로 부임해 와서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소지』에 등장하는 모재 김안국은 1517년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했고, 음애 이자는 1505년 무렵에 의성 현령으로 오게 된다. 따라서 『문소지』에 실린 모재 김안국의 행적은 시기적으로 볼 때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이자가 편찬한 『문소지』의 원본은 전하지 않고, 서문만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상세 내용을 1656년에 난재懶齋 신열도申悅道(1589~1659)가 편찬한 『문소지』의 발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⁸⁾

문소聞韶를 현縣으로 삼은 것은 신라 때가 처음이다. 상하上下 위아래로 이어져 수천 년을 살았으니 아름답고 기이한 자취가 가히 전할 만하다. 그러나 오직 승람勝覽(동국여지승람)에만 실려 있고, 그 외에는 전하는 것이 없다. 정덕正德 병인丙寅(1506, 중종 1)에 음애陰厓 이자李紆 공군이 의성현령으로 와서 처음으로 지지地誌[邑誌]를 찬술하였다. 그 서문이 당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여러 고을에 도적圖籍이 남아있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서문 몇 줄만이 있을 뿐, 글자가 많이 누락되어 살펴보기 힘들다. 가히 애석하도다! 나는 일찍이 선사先師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선생을 모셨는데,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소주韶州(의성)에는 옛날부터 지지地誌[邑誌]가 없었다네. 내가 일찍이 편찬할 뜻이 있었지만 이루지 못했다네. 자네가 그것을 계

7) 『義城金氏 五土山誌』, 오토산지 편찬위원회, 1989, 55쪽.

8) 申悅道, <聞韶誌跋>, 『懶齋集』6.

확한다면 가히 권선징악을 갖추게 될 것이네.”라고 하였다. 아아! 이는 선사先師의 가르침이요, 곧 음애陰厓 서문의 뜻이다. 드디어 참판參判 이민환李民奩 공공과 찬집纂輯을 의논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이공이 세상을 떠났다. 나는 지금까지 이러한 뜻을 망령되어 마음에 두고 있었다. 기록도 찾아보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도 수집하고 또 선배들이 남긴 글을 참고하여 책 한권을 엮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거칠고 엉성하다. 그러다보니 두려움이 많아 감추어 둔 채 감히 드러내놓지 못한 것이 여러 해다. 지금(1655년 경) 안응창安應昌 후侯는 유림의 명망이 있어 우리고을에 수령으로 와서 선한 풍속을 만들기를 힘썼다. 일찍이 나에게 옛날의 흔적을 물어오니, 내가 음애陰厓 서문의 뜻을 설명하고 선사先師가 애써 부탁한 뜻을 말하면서 초본草本이 마무리되지 못한 사실을 알렸다. 후侯(안응창)가 탄식을 하면서 글을 엮어 마무리 하도록 하였다. 이미 수차례 사양했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이에 흠어진 자료를 다시 수습하였다. …

송정병자崇禎丙子(1636) 21년 병신丙申(1656) 겨울

아주鵝洲 신열도申悅道가 의성현 서쪽 단구丹丘의 시골집에서 삼가 쓰다

신열도申悅道는 학봉 김성일의 셋째 아들인 김굉金泓의 사위이다. 아마도 이런 인연으로 스승 장현광은 그에게 『문소지』의 편찬을 권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의 내용을 보듯이 그는 음애 이자가 남긴 서문을 토대로 1656년에 『문소지』를 저술했으며, 김용비에 관한 기록 또한 이때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김용비에 관한 내용은 1577년에 작성된 동강 김우옹의 묘비문에 실린 것이 시기적으로 앞서는 셈이다. 아무튼 이를 바탕으로 김용비의 행적을 정리해보면 ‘고려 명종 때의 인물로 당시 의성에 거주했으며 큰 공적을 세움으로써 향촌민들의 추앙을 받아 왔다’라고 요약된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가 세운 공적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김우옹 역시 “안타깝게도 문헌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아 고증할 곳이 없으니 우리 시조께서 백성들에게 능히 대재大災를 막았던 것이 무슨 일이며, 능히 대환大患을 막았던 것이 무슨 일이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는 한편, 일부 자료에서는 김용비가 세운 공적을 ‘홍건적의 난’으로 기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홍건적이 침입한 것은 공민왕 때인

1360년대로, 김용비가 활동했던 시기와 약 150년 정도 시차가 생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세밀한 고증이 필요할 것 같다.

김용비가 올린 공적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고려 명종(1171~1197) 전후의 시기는 문신 우대정치에 불만을 품은 무신들이 무력을 앞세워 정권을 쟁탈하던 때였는데, 이는 고려 원종(1259~1274)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명종 때는 문신 대살육과 의종의 폐위로 정권을 장악한 무신들이 그야말로 피비린내의 보복정치를 행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국가질서가 붕괴되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민중봉기와 토적土賊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김용비가 난적亂賊을 다스리는 공로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그를 추절보절공신推節保節功臣 의성군義城君에 책봉했으며, 벼슬은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태자첨사太子詹事에 올랐다. 이후 의성지역 읍민들은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해준 김용비를 위해 사당을 건립하여 공적을 추모해왔던 것이다.

이처럼 당시 김용비가 세운 공적은 향촌공동체를 넘어 국가의 위기를 구한 것이므로 그를 위한 추모 공간의 조성은 공적公的 차원에서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의 사당(진민사)이 개별 문중의 소유지가 아니라 지역의 공적 영역인 읍내邑內⁹⁾에 건립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807년에 진민사를 중수하면서 작성된 귀외龜窩 김굉金坵(1739~1816)의 <진민사중수기鎮民祠重修記>¹⁰⁾에도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다.

진민사는 본래 읍인邑人들이 세운 것으로 자손들의 사묘私廟와는 크게 다른데, 중간에 무슨 연유로 자손들이 향사를 주관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최근에 천전川前에서 종의宗議를 모아 반드시 향중鄉中에 되돌려 주고 자

9) 진민사는 조선 전기까지는 의성읍내 관아 뒤편의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사당 주변이 어수선하고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1656년 무렵 당시 의성현령이었던 안응찬의 주도에 의해 관아 동쪽의 한적한 곳으로 이 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金坵, <鎮民祠重修記>, 『龜窩先生續集』4.

손들은 다시 말지 않도록 하고자 하니 이 의논이 참으로 옳다.

위의 내용과 같이 후손들 역시 선조의 사당이 문중 차원에서 건립된 사묘私廟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사우에 제향된 대다수의 인물들은 개별 가문의 현양顯揚을 위한 조상에 국한된다는 기존의 지적¹¹⁾과 달리, 김용비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을만한 공적을 인정받아 향촌민들의 공론에 의해 추모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문중 사묘私廟로의 전환

김용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1517년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1478~1543)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사당의 쇠락을 안타까워하면서 ‘진민사鎮民祠’라는 편액을 내린 뒤 봄과 가을의 중월仲月에 관아에서 제수祭需를 제공하여 향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¹²⁾ 따라서 이로 볼 때 진민사는 적어도 1400년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측된다.

김안국이 사당을 정비하고 나서 60년이 지난 1577년에는 김용비의 10대 손인 청계靑溪 김진金璣(1500~1580)의 발의에 의해 묘비墓碑가 건립되는데, 비문碑文은 11대손 동강 김우옹이 작성한다. 그런데 당시 김진은 78세의 고령이었던 관계로 그의 넷째 아들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1538~1593)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청계 김진은 안동 임하면 내앞마을[川前]에 위치한 청계 종가의 시조이다. 그의 조부 김만근金萬謹(1446~1500)은 임하현 일대에 상당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해주오씨 오계동吳季潼의 사위가 되면서 처가 터전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김만근의 차남 김예범

11) 이병훈, 『경상도 書院·祠宇의 건립추이와 제향인물의 성격』,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54쪽.

12) 김안국은 의성김씨로, 김용비의 아우인 김용필金龍弼의 수사공공파守司空公派에 속해 있다.

金禮範(1479~1540)이 임하현에서 지금의 종택 자리로 옮겨왔는데, 그의 장남이 바로 김진이다. 그는 내앞 의성김문을 크게 일으킨 중흥조로 추앙되고 있는 인물이다. 생원시에 합격한 후 성균관에서 과거준비에 잠시 임한 적도 있으나 도중에 단념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서당을 세운 뒤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아 면학 기틀을 다지는 한편, 탁월한 치산이재로 내앞 의성김씨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내앞마을에서 약 150리 떨어진 영양 청기의 황무지에 24만평 규모의 농장을 개척했으며 강원도 강릉 금광평에는 150만평의 광활한 토지를 개간하기도 했다. 김진은 자녀 양육에도 남다른 면을 보여 약봉藥峯 김극일金克一·귀봉龜峯 김수일金守一·운암雲巖 김명일金明一·학봉 김성일·남악南嶽 김복일金復一 등 아들 5형제 가운데 3명이 대과급제를 하고 2명이 소과에 합격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들 5형제는 지역사회에서 천전오룡川前五龍이라 불리고, 청계 종가는 오자등과 맥五子登科宅이라는 영예로운 별칭을 얻게 되었다.

청계 김진과 학봉 김성일이 활동했던 16세기는 유교적 이념에 바탕 한 가문의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던 시기로, 김진이 아들교육에 힘쓰고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던 이유도 가문의 정체성을 수립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그는 자녀교육에서 존조중종尊祖重宗의 도리를 특별히 중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자녀들에게 “집안이 흥성하느냐 몰락하느냐는 반드시 조상제사를 지내는 데서 시작되는 법이다. 어찌 조상제사를 공경히 지내지 않으면서 복을 누리는 경우가 있겠는가”하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¹³⁾ 그런가 하면 가문의식은 문중의식 - 본관의식으로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인데, 김진 역시 이러한 연장선에서 중시조 김용비의 묘비 건립을 추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성일은 156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사간원 정언·이조좌랑을 역임했으며, 1577년 1월에는 선조의 특명을 받아 사은사謝恩使 서장관書狀官의 신분으로 명나라를 다녀왔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볼 때 그는 명나라를 다녀온 후 아버지 김진의 명을 받고

13) 김미영, 『학봉 김성일, 충군애민의 삶을 살다』, 예문서원, 2016, 20~21쪽.

묘비 조성에 참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김진이 증시조의 묘소 정비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아들 3형제가 대과급제를 하고 또 넷째 아들 김성일이 크게 현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아들들의 영예로 인해 그동안 자신이 추진해왔던 가문의 위상 정립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그는, 가문의 정체성을 뒷받침해줄 혈통의 근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청계 김진으로부터 시작된 혈통의 정통성 찾기는 이후에도 계속된다. 1656년에는 의성현령이었던 안응창安應昌(1603~1680)이 김용비의 묘소 주변에 재사齋舍를 건립하여 매년 10월 초하루에 회전會奠을 거행하도록 했으며, 의성읍내 관아 뒤편의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던 진민사를 지금의 유지비遺址碑가 있는 관아 동쪽으로 이관하여 재실과 주사廚舍 그리고 위토를 마련하는 등 향사 거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¹⁴⁾ 이관 당시에는 사당 3칸, 신문神門 3칸, 강당 2칸의 규모였으며, 강당의 동서쪽으로 각각 1칸의 협실과 그 아래로 전수典守와 포주庖廚 3칸을 마련하였다. 한편 안응창은 순흥안씨 안향安晌의 14세손으로, 김용비의 외후손이기도 하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으로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1587~1667)가 작성한 <진민사이건기鎮民祠移建記>가 전하는데, 그는 학봉 김성일의 셋째 아들 김굉金滋의 만사위이다. 따라서 1656년에 간행된 『문소지聞韶誌』의 편찬자 신열도申悅道(1589~1659)와는 동서간이 되는 셈이다. 다음은 <진민사이건기>의 일부 내용이다.¹⁵⁾

묘소 앞에는 석물石物과 향화香火가 갖추어지질 못했고, 영령英靈을 받드는 사당은 사방으로 난 길 가운데 있어서 말발굽과 수레마퀴 소리가 어지러워 신령을 편히 모실 수 있는 장소로는 적합하지 못함이 분명하였다.

내용을 보듯이 1577년에 청계 김진이 묘비를 건립했으나 여전히 묘소 주변은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 읍내 대로변의 어수선한 주변 환경으로

14) 『義城金氏 五土山誌』, 오토산지 편찬위원회, 1989, 50쪽.

15) 金應祖, <鎮民祠移建記>, 『五土齋舍攷遺錄』.

인해 향사를 거행하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1749년에는 16대손 김우겸金宇謙(1682~1760)이 중심이 되어 사당과 재실 등을 중수하고, 위토를 추가로 구입하였다. 당시 16대손 와계臥溪 김성흠金聖欽(1682~1757)이 <진민사중수기鎭民祠重修記>를 작성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⁶⁾

진민사는 수백 년이나 오래되어 재우齋宇가 기울고 무너졌다. 예산이 모자란 탓에 춘추의 제향과 한 해의 묘사墓祀를 갖추어 행할 수가 없었고, 여러 자손들은 사방에 흩어져 일을 맡아 볼 사람이 없으니 멀고 가까워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슬피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앞서 1656년 의성현령 안응창에 의해 이루어졌던 중수작업으로부터 약 100년이 흐른 상황이다. 내용을 보듯이 체계적인 관리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탓에 건물의 쇠락이 심각했으며, 또 춘추향사와 묘사가 안정적으로 거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770년 무렵에는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 재사齋舍가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이에 18대손 김상옥金相玉과 16대손 송고松皐 김용익金龍漢의 주도 아래 개최된 문중회의에서 후손들을 대상으로 1만 2천냥의 성금을 모으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원래의 위치에서 십여 리 떨어진 곳에 25칸 규모로 증축했는데, 이때 추원당追遠堂 4칸, 사경당思敬堂 2칸, 방 8칸을 비롯해 주사廚舍와 창고가 추가되었다. 참고로 김상옥은 학봉 김성일의 후예이고, 김용익은 1656년 진민사를 이건설 때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12대손 김탁의 현손玄孫이다. 당시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1711~1781)은 <오토산 재사중수기五土山齋舍重修記>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¹⁷⁾

재사齋舍가 오래되었고 또 화재의 액운을 당하여 기울고 무너지기가 심하

16) 金聖欽, <鎭民祠重修記>, 『臥溪文集』2.

17) 李象靖, <五土山齋舍重修記>, 『大山先生續集』1.

였다. 후손 상옥군相玉君과 용익군龍翼君이 전대의 뒤를 이어 이를 증수할 뜻을 두고 중중의 의논에 부쳐 만2천전錢을 얻어 광언光彦 우용遇龍 광재光載에게 그 일을 맡게 하였다.

대산 이상정은 안동 내앞마을 운천雲川 김용金涌의 외후손이다. 그는 “먼 조상은 사람들이 잇기 쉬운 바인데, 능히 추모하는 것은 두터움이 지극한 것이다”라고, 몇 백년이 지난 선조의 넋을 지속적으로 기리는 의성김문의 숭조 의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1807년에는 입술보壬戌譜를 간행하고 나서 남은 예산으로 이식利殖을 늘려 사당과 신문神門 등을 증수했으며, 전사청典祀廳을 신축하였다. 당시 18대손 귀와龜窩 김굉金塏(1739~1816)이 작성한 <진민사중수기鎮民祠重修記>가 전한다.¹⁸⁾

병신丙申(1656)으로부터 152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재사가 손상되어 무너지고 물이 새서 거의 견딜 수가 없었다. 1802년에 여러 종친이 본사本祠에서 대동보를 편수編修했는데 그 일을 마치면서 본사를 증수하기로 결정하였다.

1656년에 시작된 최초의 증수작업으로부터 152년이 흐르고 보니 건물의 쇠락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족보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 증수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의성김씨 족보의 편수작업이 행해진 ‘본사本祠’란 오토재 강당을 일컫는데, 이는 결국 진민사가 지역 차원의 공적公的 영역으로부터 문중 차원의 사적私的 영역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약 40년이 지난 1850년에는 건물 대부분이 퇴락하여 허물어지는 상황이었으나 재정 마련이 여의치 않아 쇠락이 가장 심했던 사경루思敬樓를 증수했는데, 다음은 20대손 김명수金明壽가 작성한 <사경루중수기思敬樓重修記>의 일부 내용이다.¹⁹⁾

18) 金塏, <鎮民祠重修記>, 『龜窩先生續集』4.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기둥과 들보가 무너져 우리의 모든 종족들의 근심과 탄식거리가 된지 오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오히려 일을 맡아서 힘쓸 사람이 없으니 이는 정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힘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었다. 올 봄에 명수明壽가 재임齋任을 맡아 중중宗中에 이르기를 “재료齋寮의 일은 너무 벅차서 감히 손을 댈 수 없지만 가장 급한 것은 사경루思敬樓 3칸이니 어찌 먼저 이를 도모하여 뒷날에 개수改修를 할 바탕을 삼지 않겠는가?”라고 하니 모두들 “그렇다!”라고 하였다.

내용을 보듯이 수차례에 걸친 중수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퇴락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은 그동안 자금 문제로 인해 대폭적인 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런 가운데 1868년에는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의성 읍내에 자리하고 있던 진민사가 헐리면서 지금의 오토산으로 이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21대손 척암拓庵 김도화金道和(1825~1912)가 작성한 <오토산 별묘상량문五土山別廟上樑文>이 전하고 있다.²⁰⁾

오토산 묘소의 산등성 그윽하고 깊은 곳을 정하니 실로 문소현聞韶縣 맑은 정기가 맺힌 곳이다. 금성산 한 줄기의 산세는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듯하니 누가 이 체세體勢를 고리갈다 아니하랴? 천 년의 묘도墓道에 선 비석은 거북이가 엮드리고 용이 꿈틀거리는 듯하니 완연히 묘소가 여전히 무고함을 보겠도다.

이처럼 서원철폐령에 의해 김용비의 묘소가 자리한 곳으로 진민사를 이견함으로써 이른바 의성김문의 오토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1890년에는 진민사가 자리했던 읍내의 옛터에 유지비遺址碑가 세워졌다. 당시 22대손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1827~1899)이 <진민사유지비 음기鎮民祠遺址碑陰記>를 작성했고 21대손 척암 김도화는 <진민사유허비각기鎮民祠遺墟碑閣記>를 지었다.

19) 金明壽, <思敬樓重修記>, 『五土齋舍攷遺錄』.

20) 金道和, <五土山別廟上樑文>, 『拓菴先生文集』17.

불행히도 수십 년 전에 서원철폐령에 함께 휩쓸려 남은 것이 없게 되었으니 천 년토록 우리르고 사모했던 곳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 세월이 이미 오래 지남에 이목耳目이 점차 멀어져 서리와 이슬에 적셔지게 되고 발가는 쟁기에 침범을 당하게 되니 무너진 주춧돌과 담장에서 비록 어렵풋하게 옛 자취를 살피고자 하나 볼 수가 없게 되었으니 장차 무엇으로써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손의 무궁한 감회를 갖들일 것인가?21)

사당은 지난 몇 년 전에 서원철폐령으로 일제히 헐리기에 건물이 폐허가 되었다. … 이로부터 지킬 사람이 없고 거칠어진 폐허가 눈앞에 가득하여 나무하고 풀 뜯는 이가 제사를 드리던 장소에 어지러이 들어가고 밭 같고 쟁기질하는 이가 상설象設의 유허에 이르러 길을 가는 나그네로 하여금 자주 그 자리를 가리키면서 탄식하고 차마 떠나지 못하게 함이 있었다. … 이는 마땅히 우리 종중의 군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근심하고 애통해하면서 상심하여 수습하고 보호할 바를 도모하여 진민사의 자취가 사라져서 살필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22)

위의 내용과 같이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오토산으로 사당을 이 건했지만, 아마도 건물 일부는 예전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선조의 자취가 깃든 장소가 폐허로 변해가는 것이 안타까워 유지비遺址碑를 건립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비각을 세우던 해에 흉년이 들어 단청을 미처 입히지 못했다.23) 그러다가 1904년에 비로소 단청을 입혔으며, 1911년에는 비각을 새로이 중수하였다.

그런데 1915년에 또 다시 화재의 번고를 만나 건물 전체가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종중에서는 전국의 후손들에게 <오토재중건통문五土齋重建通文>을 돌리게 된다.24)

21) 金興洛, <鎮民祠遺址碑陰記>, 『西山先生文集』17.

22) 金道和, <鎮民祠遺墟碑閣記> 『拓菴先生文集』17.

23) 金弼華, <鎮民祠遺址碑閣重修丹牘記>, 『五土齋舍攷遺錄』.

24) <五土齋重建通文>, 『五土齋舍攷遺錄』.

...

운수와 복조福祚가 불행하여 화신火神이 재앙을 고하게 됨에 16칸의 천년 재사齋舍가 하루 아침에 불타버리고 남은 것이 없게 되자 놀랍고 두려움은 진실로 모든 자손들이 타고난 천성에서 느끼는 바이지만, 거둬 새로 세우기는 하루 만에 할 것이 아니고 혹 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리한즉 두루 생각하고 헤아려 이 일을 도와서 이를 방법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아! 나무가 근본이 없으면 어찌 가지가 자라날 것이며, 물이 원천源泉이 없으면 또한 어찌 냇물을 이루겠는가? 지금 우리 의성김씨가 면면히 신라 고려 조선의 삼국을 지내오면서 전국에 널리 퍼져서 살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들 선조의 깊은 근원으로부터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만약에 능히 정성을 다하여 추모하고 보답하지 못하여 제사를 받드는 소중한 곳을 불타고 남은 찻터미 가운데 내버려둔다면 선조의 영령英靈이 어찌 가까이 “나에게 훌륭한 후손이 있다”라고 여기시겠는가? 우리 자손들로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가까이 사는 여러 족친들이 이보다 앞서 함께 모여서 각각 임원을 정하여 능히 중건重建할 것을 도모하고 아울러 나라 안의 종족들에게 고하니, 한 조상의 후손인 우리들은 각자 힘써서 그 마음과 힘을 한결같이 함으로써 대사大事를 돈독히 힘쓸 터전을 삼게 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후손들에게 보낼 통문을 작성하면서 7가지 절목節目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성인 1인당 한 냥의 성금을 거두고, 재사齋舍 중건을 계기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후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성금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후손은 본재本齋에서 소외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동애東厓 김진성金鎭聲(1862~1933)이 작성한 <오토재사강당상량문五土齋舍講堂上樑文>에 따르면,²⁵⁾ 목재는 안동에서 운반해왔고 기와는 의성에서 조달했는데, 오토산으로 향하는 짐차와 수레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행렬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후 1924년에는 오토산 입구에 신도비와 비각을 건립했으며, 1959년에는 세보世譜 편찬을 마무리한 뒤 진민사를 중건하였다. 다음은 만산晩山 김정모金正模(1889~1967)가 작성한 <진민사중건기鎭民祠重建記>의 일부 내용이다.²⁶⁾

25) 金鎭聲, <五土齋舍講堂上樑文>, 『五土齋舍攷遺錄』.

… 몇 차례 수리를 한 덕분에 퇴락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규모가 향례享禮를 행할 때 두루 돌아서 움직이기에는 좁았기 때문에 이번 기해己亥(1959)의 세보世譜를 편찬하는 일을 마치고 각 고을의 후손들이 성금을 내고 정성을 다하여 옛적의 규모를 바꿔서 새로이 하고자 했다.

이처럼 1959년에는 건물의 퇴락이 아니라 규모가 협소했던 관계로 이루어진 중건이었다. 이를 <진민사중건상량문鎮民祠重建上樑文>²⁷⁾에서는 “너무 좁아 제관이 서로 계단 끝에서 부딪히니 어찌 후손들만의 탄식이겠는가? 또한 백성들조차도 민망히 여겼도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리고는 “새로 짓자는 의견을 냈지만 형편이 어려워 미치지 못함을 탄식하였더니, 널리 알린지 여러 해가 지나자 비로소 원근遠近의 집집마다 성금을 내고 사람마다 힘을 바치니 모두 정성스런 마음이고, 생각이 모이고 뜻을 함께 하니 어찌 일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이고 있다.

<표1> 첨사공 김용비 사적事蹟 조성

연도	내용	중심 인물	관련 자료
고려 말	사당 건립	지역민	『聞韶誌』
1517	鎮民祠 편액, 祭需官給, 춘추향사	경상도 관찰사 모재 김안국	『聞韶誌』
1577	묘비 건립	10대손 청계 김진, 11대손 학봉 김성일	<五土山立石發文>: 10대손 청계 김진 작성 <始祖太子詹事府君墓碑>: 11대손 동강 김우용 작성
1656	묘소에 재사 건립, 祭需官給, 會奠 거행 진민사 이건(현재 遺址碑 자리)	의성현령 안응창 12대손 김탁	<鎮民祠移建記>: 학사 김응조 작성
1749	사당과 재실 중수, 위토 조성	16대손 김우겸	<鎮民祠重修記>: 16대손 와계 김성흠 작성
1770	화재 발생	18대손 김상옥, 16대	<五土山齋舍重修記>: 대

26) 金正模, <鎮民祠重建記>, 『晚山文集』4.

27) 金佑林, <<鎮民祠重建上樑文>, 『重齋先生文集』後集18.

	오토산 齋舍 증축(25칸 규모)	손 김용익	산 이상정 작성 / <五土山齋舍上樑文>: 17대손 범암 김익명 작성 / <五土山齋舍上樑文>: 17대손 사익재 김광유 작성
1807	壬戌譜 간행 사당과 神門 중수, 전사청 신축		<鎮民祠重修記>: 18대손 귀와 김굉 작성
1850	思敬樓 중수		<思敬樓重修記>“ 20대손 김명수 작성
1868	서원절패령에 의해 진민사를 오토산으로 이전		<五土山別廟上樑文>: 21대손 척암 김도화 작성
1890	진민사 옛터에 遺址碑 건립		<鎮民祠遺址碑陰記>: 22대손 서산 김홍락 작성/ <鎮民祠遺址碑陰記後誌>: 의성현령 김윤현 작성/ <鎮民祠遺墟碑閣記>: 21대손 척암 김도화 작성
1904	비각 단청		<鎮民祠遺址碑閣重修丹腹記>: 19대손 괴현 김필화 작성
1911	비각 중수		<鎮民祠遺址碑閣重修記>: 23대손 만성 김한주 작성
1915	화재 발생 오토재 중건	21대손 김상호(齋任)	<五土齋重建通文> <五土齋舍講堂上樑文>: 20대손 동애 김진성 작성
1924	오토산 입구에 신도비 및 비각 건립	23대손 김세동	<五土山神道碑銘>: 김상덕 ²⁸⁾ 작성 <神道碑陰記>: 23대손 김세동 작성 <神道碑閣上樑文>: 21대손 학남 김천호 작성
1959	世譜 편찬 진민사 중건		<鎮民祠重建記>: 23대손 만산 김정모 작성 <鎮民祠重建上樑文>: 24대손 중재 김우립 작성
1988	오토산추원사업 완결	22대손 김홍식	

<표1>은 고려 말(1400년대) 의성읍민들이 김용비의 공적을 기리고자 사당을 건립했을 당시부터 1988년 오토산추원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당초 의성읍민들에 의해 건립·운영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도세력이 후손 중심으로 변모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유교적 가문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16세기를 기점으로 시작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그런가 하면, 후손들 사이에서는 지역 공론을 거쳐 건립된 사당이 점차 지역성을 상실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의 내용은 1807년에 진민사를 중수할 당시 귀와 김굉이 작성한 <진민사중수기鎮民祠重修記>이다.²⁹⁾

진민사는 본래 읍민들이 세운 것으로서 자손들의 사묘私廟와는 크게 다른데, 중간에 무슨 연유로 자손들이 향사를 주관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최근에 천전川前에서의 종의宗議는 반드시 향중鄉中에 되돌려 주고 자손들은 다시 말지 않도록 하고자 하니 이 의논이 참으로 옳다. 그러나 본향本鄉(의성읍민)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자손들 또한 의의가 없다고 해서 말지 않는다면 이는 몇 백년 동안 선조의 영령英靈을 받들던 곳이 마침내 잡초만 우거진 폐허가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중수한 일은 또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능히 마지못해 한 것이 된다. ...다행이 이제 사당의 모습이 거듭 새롭게 되었으니 만일 이로 인해 더욱 더 초치한 뒤에 서서히 본향本鄉의 사우士友들에게 의논하여 점차적으로 옛날처럼 향중鄉中으로 되돌리도록 하더라도 또한 늦지 않을 것이다.

내용을 보듯이 후손들은 혈손이 중심이 되는 사묘私廟(문중사우)보다는 향중鄉中의 지지를 받는 이른바 공묘公廟(향사우鄉祠宇)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후손들이 진민사의 사묘화私廟化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된 까닭은, 이로 인해 조상의 정통성에 흠결이 생길 것을

28) <오토산신도비명五土山神道碑銘>은 23대손 金秉宗(1871~1931)이 金商惠(慶州人)의 이름으로 대작代作한 것으로 전한다.(『義城金氏 五土山誌』, 오토산지 편찬위원회, 1989, 130쪽)

29) 金坵, <鎮民祠重修記>, 『龜窩先生續集』4.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1983년에 추향秋享을 거행하면서 오토재 중건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듬해 1984년에는 ‘오토재관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하지만 조직은 결성되었으나 위원회를 이끌어갈 중심인물이 부재했던 관계로 약 3년간의 공백 기간을 갖다가 1987년 3월에 22대손 김홍식金泓植을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그러다가 1988년 10월의 준공을 거쳐 1989년에 최종 마무리를 짓게 된다.

고려 말 의성읍민에 의해 건립된 진민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지니고 있던 지역성에서 벗어나 혈통성이 점차 강조되어 가는데, 이러한 경향은 16세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1989년에 행해진 ‘오토산 성역화사업’에 의해 완전한 후손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게 된다. 의성김씨 역시 1989년에 오토재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는 기념식에서 “오토재는 종친들의 끊임없는 순례지巡禮地이자 훌륭한 교육의 산실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³⁰⁾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이처럼 진민사는 수백 년이 흐르면서 후손들의 성스러운 순례지가 되었으며, 그곳에 모셔져 있는 김용비는 성조聖祖로 추앙되고 있는 것이다.

Ⅲ. 진민사 제향의 의례적 성격

향교의 석전대제와 같이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의례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규범으로 삼고 있다. 『국조오례의』는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의 다섯 항목을 중심으로 사람의 도리를 구체화하면서 천하 국가를 다스리고자 하는 왕례서王禮書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³¹⁾ 이 중에서 가장 중시된 길례는 천天·지地·인인·삼재三才의 신으

30) 『義城金氏 五土山誌』, 오토산지 편찬위원회, 1989, 325쪽

31) 이범직, 「국조오례의 속에서 사대부 제례(時享禮)의 위상」, 『유교사상문화연구』16, 한국유교학회, 2002, 15쪽.

로 표시되는 천신天神·지지地祇·인귀人鬼에 대한 의례로 분류된다. 그런데 인귀를 위한 향례享禮 가운데 향교의 석전제釋奠祭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서원이나 사우의 향사례에 대한 내용은 실려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서원의 향사례는 향교 석전제를 모방하여 제식祭式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³²⁾ 따라서 안동향교의 석전제와 도산서원 향사례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사우로서의 진민사 제향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홀기를 통해본 제향 절차의 특징

『국조오례의』에서는 시일時日·신위·축판·폐백·제물 등에서의 차별화를 통해 의례적 권위를 상징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³³⁾ 예를 들어 왕실 제의는 맹월孟月³⁴⁾에 택일하지만 사대부의 제의는 중월仲月에 택일하고, 다시 상하품계에 따라 상순上旬·중순中旬·하순下旬으로 차등화했던 것이다. 참고로 진민사의 제향일은 중월仲月인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인데³⁵⁾, 안동향교의 석전제 역시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봉행하고, 도산서원의 향사례는 음력 2월과 8월의 중정일中丁日에 거행한다. 이처럼 서원의 향사례는 춘추 중월仲月의 중정일에 거행하는 것이 보편적 경향인데, 그 이유는 국학에서 선성先聖·선사先師·선현先賢 등을 위한 향교의 석전제를 상정일에 봉행하기 때문에³⁶⁾ 나름의 차등을 두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서원에서는 춘추 계절季月의 상정일에 향사례를 지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영주의 소수서원과 안동의 병산서원 등이다. 그런데 이들 역시 중월이 아니라 계절로 정해둠으로써 차등을 두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원의 향사례는 『국조오례의』의 조목에 포함되어 있지

32)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제례와 위치」, 『진단학보』90, 진단학회, 2000, 58쪽.

33) 이범직, 앞의 논문, 2002, 18쪽.

34) 춘추 맹월孟月은 1월과 7월, 중월仲月은 2월과 8월, 계절季月은 3월과 9월이다.

35) 현재 진민사는 향사례 날짜를 양력 4월 5일로 변경하였다.

36) 『國朝五禮序例』, 「吉禮·時日」 “仲春、仲秋上丁, 釋奠文宣王.”

앞으로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국조오례의』의 ‘석전의釋奠儀’를 전거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조오례의』 「주현석전문선왕의州縣釋奠文宣王儀」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주현석전정배위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 등이다. 그런데 조선 초중기만 하더라도 서원의 향사례가 속례俗禮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퇴계 이황에 이르러 비로소 향사례의 의식 절차가 정비된다. 즉 퇴계는 1549년 12월 풍기군수로 재직하면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사액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이를 계기로 이듬해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이 탄생하는데, 이때 그는 백운동서원에서 준행되어 온 기존의 향사례 방식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국조오례의』에 의거하여 제식祭式을 마련하는 것이다.³⁷⁾

<표2> 진민사 · 도산서원 · 안동향교의 홀기 비교

진민사	도산서원	안동향교
贊者及謁者贊引先就階間拜位 - 再拜 - 謁者及贊引各引獻官就外位 - 贊引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 - 再拜 - 贊引引祝及諸執事詣盥洗位 - 各就位	諸執事先詣外位	執禮及廟司先就階間拜位 - 四拜訖 - 謁者贊引俱就階間拜位 - 四拜訖 - 贊引引大祝及諸執事入就階間拜位 - 四拜 - 大祝及諸執事詣盥洗位
	謁者引初獻官點視陳設	
開櫝	執事開櫝 - 開蓋	廟司及奉香奉燭升 - 開扉 - 開櫝 - 啓蓋
	謁者及贊引各引獻官就外位 - 贊引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 - 再拜 - 謁者及贊引各引獻官入就拜位 - 再拜	
謁者進初獻官之左請行事		謁者請行事
	引詣神位前 - 三上香	<行奠幣禮> 引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 - 三上香 - 大祝受幣奠于神位前

37) 이에 대해서는 한재훈, 「퇴계의 서원향사례정초에 대한 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次 復聖公,宗聖公,述聖公,亞聖公)
<行初獻禮>	<初獻禮>	<行初獻禮>
引詣神位前跪 - 上香		
奠爵	引詣神位前 - 奠爵	引詣神位前跪 - 以授奠爵
讀祝	讀祝	讀祝 (次 復聖公,宗聖公,述聖公,亞聖公)
<行亞獻禮>	<亞獻禮>	<行亞獻禮>
引詣尊所 - 引詣神位前跪	引詣尊所 - 引詣神位前 - 跪	引詣大成至聖文宣王尊所 - 引詣神位前跪
奠爵	奠爵	以授奠爵 (次 復聖公,宗聖公,述聖公,亞聖公)
<行終獻禮>	<終獻>	<行終獻禮>
引詣尊所 - 引詣神位前跪	贊引各引終獻官分獻官詣盥洗位 - 引詣尊所 - 引詣神位前 - 跪	引詣大成至聖文宣王尊所 - 引詣神位前跪
奠爵	奠爵	以授奠爵 (次 復聖公,宗聖公,述聖公,亞聖公)
獻官皆再拜 - 鞠躬		
		<行分獻禮>
		引詣東西從享位前跪 - 各奉香奉燭升
		分獻官三上香
		以授奠爵
<行飲福禮>	<飲福受酢>	<行飲福禮>
祝詣尊所以爵酌福酒 - 祝持俎及刀進減神位前胙肉	執事詣尊所 - 以爵酌福酒 - 執事進減神位前胙肉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西向跪 - 大祝升詣初獻官之左北向跪 奠爵升持刀俎肉 - 以爵酌福酒 - 以授大祝 - 大祝授初獻官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	
獻官飲卒酌 - 祝東向以胙授獻官 - 獻官受胙授祝祝受胙	獻官飲卒爵 - 獻官授胙 - 授執事	初獻官受爵飲訖 - 初獻官受胙 - 以授大祝
降自東階出門 - 俯 - 伏 - 興 - 獻官皆再拜 - 鞠躬	俯伏興 - 引降復位 - 再拜 - 獻官皆再拜 - 鞠躬拜	降自東階初獻官 - 俯, 伏, 興 - 引降復位 - 獻官四拜
撤籩豆 - 在位者及學生皆再拜	<撤籩豆> 祝入徹籩豆 - 在位者皆再拜 -	大祝升徹籩豆 - 獻官以下

— 鞠躬 閉櫝	鞠躬拜	在位者皆四拜
謁者詣初獻官詣望瘞位 — 祝取 祝降自西階瘞坎	<望瘞> 謁者引初獻官詣望瘞位— 祝取 板降自西階 — 瘞坎	<行望瘞禮> 謁者引初獻官詣望瘞位 — 大祝以篋取祝板及幣降自西 階 — 可燎置土半坎
謁者進初獻官之左告禮畢 — 禮 畢		謁者進初獻官之左 — 白禮 畢 奉香奉壺升 — 閉櫝閉扉闔 蓋
謁者引初獻官贊引各獻官以次出 — 再拜 — 鞠躬 — 以次出 — 謁者贊者贊引就階間拜位 — 再 拜 — 出	謁者引初獻官贊引各獻官以次出 — 祝及諸執事皆復拜位 — 再拜 — 鞠躬拜 — 以次出	諸執事俱復階間拜位 — 四 拜 — 獻官以下以次出 — 執禮四拜出

<표2>는 진민사와 도산서원, 안동향교의 홀기를 비교해둔 자료이다. 참고로 진민사의 홀기는 1577년에 김용비의 11대손인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顛(1540~1603)이 묘비문을 작성할 때 함께 제작되었다. 이후 화재로 인해 원본이 소실된 적도 있으나, 『오토제사고유록五土齋舍遺錄』에 별도로 기록해둔 덕분에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표2>에 따르면 의례 절차는 거의 유사하지만, 세부내용에서 대략 두 가지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는 의례 과정에서 배례拜禮를 수행할 때 재배再拜인가 사배四拜인가의 문제이다. 진민사와 도산서원은 재배를 행하는 반면, 안동향교는 사배이다. 이에 대해 퇴계이황은 소수서원의 전신인 백운동서원의 제식祭式을 규정할 때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³⁸⁾

「제식祭式」에서는 다만 재배再拜하는 예를 따르라고 했고, 「구홀기舊笏記」역시 이에 의거하여 모두 재배를 행하도록 하였다. 인정人情이란 간소함을 좋아하고 번다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모두들 이를 당연하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재배하는 예는 가제家祭에서나 하는 것이며, 모든 외신外神에게 제향을 드

38) 『文成公廟祭笏記』(한계훈, 위의 논문, 16쪽에서 재인용)

릴 때는 사배四拜하라고 되어 있다. 재배하라는 글이 있는지 보지 못했으며, 주무릉周武陵(주세붕)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다. 우선은 「석전의釋奠儀」에 의거하여 사배하기로 정하고 참고參考를 기다린다.

내용을 볼 때 당시 백운동서원의 제식에는 재배再拜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퇴계는 재배를 가제家祭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면서 서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사배로 수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훗날 퇴계는 자신의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깨닫고 수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에서 “외신外神에게는 모두 사배하라. 재배하라는 글이 있는지 보지 못했다”고 한 것은 단지 『오례의五禮儀』에 의거한 말이었다. 『한묵전서翰墨全書』에 실린 주문공의 석전釋奠·석채의釋菜儀에 모두 재배를 행하라고 하였고, 사배하는 예가 없음을 살피고서야 주무릉이 「제식祭式」에서 재배하라고 한 것이 여기에 근거하여 정한 것임을 알았다. 내가 모든 의절을 두루 참고하지 못한 채 서둘러 고치려 했던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홀기에는 재배를 그대로 두었으며, 이 조항을 없애지 않음으로써 나의 허물을 기록으로 남긴다.

위의 내용을 보듯이 퇴계는 임금을 향해서만 사배하는 것을 가제家祭에서 모시는 신을 제외한 이른바 외신外神 모두에게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오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거典據를 두루 살피던 중 문묘와 향교는 문선왕文宣王(공자)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배가 합당하고, 그 외 선현을 모셔둔 서원은 재배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민사의 경우 제향일에서는 향교와 동일하게 중월仲月인 2월과 8월의 상정일로 정해두었지만, 배례에서는 서원에 준하여 재배를 따르고 있다.

둘째는 상향례上香禮의 절차이다. 안동향교는 일반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상향례와 초헌례를 별도로 분리하여 초헌관이 삼상향三上香을 행하고 나서 전폐례奠幣禮의 절차에서 폐백(비단)을 올린 뒤 초헌례를 거행한다. 도산서원 역시 상향례와 초헌례를 각각 별도로 행하는데, 다만 전폐례는 행하지 않는다. 참고로 <그림2>의 도산서원 진설도를 보면 ‘폐幣 무진戊辰 국감國減’이라

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 도산서원에서는 원래 폐幣를 올리는 절차가 있었으나 무진년에 국감國滅, 곧 나라의 명령으로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진민사는 초헌례의 절차에서 삼상향三上香을 함께 거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삼상향三上香은 가제家祭의 강신례에 해당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신을 모셔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퇴계는 상향례上香禮와 초헌례를 서로 분리하여 별도의 절차에서 각각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³⁹⁾ 참고로 안동민속박물관이 발간한 『안동의 서원 향사』⁴⁰⁾에 실린 총 21개의 서원 중에서 약 절반가량인 10개 서원⁴¹⁾에서는 상향례와 초헌례를 분리해두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서원에서는 초헌례에 포함시켜두었다.

2. 진설도에 나타난 제물의 특징

『예기』에 “예의 본질은 구별에 있다. 구별하기에 서로 존경하도록 해준다.”⁴²⁾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러한 관념에 기반하여 『국조오례의』 역시 의례적 권위를 상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의례의 격에 따른 차등화를 실천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수량의 다소多少, 크기의 대소大小, 높이의 고저高低 등에 따라 신분적 차등질서가 규정되는데, 대체로 많고 크고 높은 것일수록 존귀하게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⁴³⁾

제물의 경우에는 차별화의 효과를 가시적·즉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제물의 종류와 수량을 중심으로 차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석전제와 서원향사례의 제물은 다음과 같이 차별화되어 있다.⁴⁴⁾

39) 『退溪全書』續集8, “旋上香而旋初獻”.

40) 『安東의 書院 享祀』, 안동민속박물관, 1996.

41) 陶山書院, 易東書院, 屏山書院, 花川書院, 汾江書院, 道溪書院, 龍溪書院, 明湖書院, 鳳巖書院, 流巖書院이다.

42) 『禮記』, 「樂記」.

43) 김미영, 「조선시대 유교의례의 사회적 기능과 상징적 의미」, 『국학연구』14, 한국국학진흥원, 2009, 231쪽.

44) 권삼문, 「향사의 역사와 구조」, 『역사민속학』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56쪽.

종묘: 12변 12두, 4보 4례, 6대갱 6화갱, 생우양시牲牛羊豕, 숙우양시熟牛羊豕, 모혈반毛血盤

문묘: 12변 12두, 2보 2례, 3대갱 3화갱, 생우양시牲牛羊豕, 숙우양시熟牛羊豕, 모혈반毛血盤

향교: 8변 8두, 2보 2례, 생우양시牲牛羊豕

서원: 4변 4두, 1보 1례, 생양시牲羊豕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림1>은 진민사의 진설도이고, <그림2>는 도산서원의 주향主享인 퇴계 이황의 진설도이고, <그림3>은 안동향교의 공자에게 차려지는 진설도이다. 안동향교는 8변 8두, 1보 1례, 생우시牲牛豕와 폐비幣篚(폐백)를 진설하는데, 향교의 원래 규정이었던 2보 2례가 1보 1례로 간소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산서원의 경우 진설도에는 4변 4두, 2보 2례, 시생豕牲으로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양보梁簠와 직례稷籩를 생략하여 1보 1례를 진설하고 있다. 사실 위에서 제시한 제물 규정을 볼 때 2보 2례는 향교에 적용되는 것으로, 서원 향사례의 제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진민사의 경우는 서원 진설도에 명시된 4변 4두, 1보 1례, 생牲의 제물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진민사의 제물은 서원 향사례에 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 역시 “축문과 헌작에서 모두 자손들이 사사로이 받드는 의식을 쓰게 되니, 이는 유림이 받드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 서원의 향례享禮와 비교하여 명분과 실상이 스스로 같지 아니하였다”⁴⁵⁾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곧 진민사의 제향 방식은 서원 향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45) 金興洛, <鎭民祠遺址碑陰記>, 『西山先生文集』17.

<그림1> 진민사 진설도

右四豆		神位		左四籩	
		簋(黍)		簠(稻)	
鹿醢	魚醢			鹿脯	魚脯
芹菹	菁菹			黃栗	乾棗
		牲			
燭					燭
爵		爵		爵	

<그림2> 도산서원 진설도(退陶李先生)

右四豆		神位				左四籩	
魚醢	鹿醢	黍簋	稻簠	魚鱠	鹿脯		
菁菹	韭菹	稷簋	粱簠	乾棗	栝子		
		減國	未癸				
		豕牲					
		國減	幣	戊辰			
燭	爐	十八尺		香	燭		
爵		爵		爵			

〈그림3〉 안동향교 석전제 진설도(孔子)

右八豆			神位			左八籩		
魚醢	鹿醢		簋(黍)	簋(稻)	鹿脯	魚脯		
菲菹	芹菹	菁菹	豕牲	犧牲	胡桃	黃栗	大棗	
桔梗	筍菹	生薑		幣篚	形籩	栢子	杏子	
	燭			香爐			燭	
		爵		爵			爵	

진설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희생犧牲 제물이다. 예를 들어 안동향교는 생우양시牲牛羊豕 곧 소·양·돼지 한 마리를 올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머리와 돼지머리를 각각 진설하고 있다. 도산서원은 생양시牲羊豕 곧 양과 돼지 한 마리를 진설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향사례에서는 돼지 반 마리를 올린다. 진민사 역시 서원 향사례에 의거하여 진설도에 생양시牲羊豕로 제시해두었으나, 제향에서는 돼지머리를 진설하고 있다. 이처럼 희생 제물에서 양羊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소와 돼지 역시 한 마리에서 반 마리 혹은 머리 부분으로 대체되는 등 전반적으로 간소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진민사의 제물 절목 가운데 “전에는 생우牲牛 한 마리를 썼으나 이제는 반 마리를 쓰고”⁴⁶⁾라는 내용이 실려 있기도 하다.

가제家祭와 달리 석전의釋奠儀와 향사례에서는 제기祭器의 종류에 따라 담는 제물이 달라진다. 우선 곡물을 담는 제기로 보籩와 궤篚가 있다. 보는 도稷(쌀)와 양粱(메조)을 담는 제기이고, 궤는 서黍(기장)와 직稷(차조)을 담는 타원형의 제기이다. 그리고 대나무로 제작된 변籩은 양기陽器로, 물기가 없는

46) 『義城金氏 五土山誌』, <五土齋舍 更張 節目>, 오토산지 편찬위원회, 1989, 184쪽

마른 제물을 담는다. 나무 재질의 두로는 음기陰器로, 음에 속하는 물기 있는 제물을 담는다. 이 가운데 변에 담는 녹포鹿脯와 두에 담는 녹해鹿醢 외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편이다. 녹포는 사슴육포이지만, 현실적으로 조달하기 힘든 관계로 쇠고기를 사용한 육포로 대체되었다. 녹해 역시 사슴고기절임이지만, 실제로는 쇠고기 날것을 진설하고 있다.

IV. 맺음말

진민사鎮民祠는 고려 말 의성읍민에 의해 건립된 사우祠宇로, 이른바 공묘公廟(향사우鄉祠宇)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은 현재 남아있는 진민사의 제향 축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鎮民祠祝式

維歲次干支某月朔干支某日干支後孫某

官某敢昭告于

高麗太子詹事府君德尊當世澤在斯民鄉邦

景慕曠百維新謹以清酌豕牲式陳明薦

尙

饗

축문을 보듯이 ‘당세當世에 공덕이 높았고 백성에게 은택이 있어 향촌이 우러르고 사모하여’라는 내용은 진민사의 건립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민사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민사 제향의 주도세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민에서 후손 중심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표1>을 보듯이 유교적 가족이념이 정착하기 시작하는 16~17세기를 거치면서 점차 심화되어 가는데, 여기에는 이율배반적 측면이 자리하고 있다. 즉, 문중의식의 강화는 혈통적 근원에 대한 후손

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진민사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결과로 이어지는 반면, 의성읍민들 역시 진민사를 지역의 공적公的 유산이 아니라 혈통적 차원에서 인식하여 결국에는 특정 성씨의 사묘私廟로 간주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진민사가 문중 사우가 아니라 지역에 기반한 향사우鄉祠宇로 거듭나야 할 당위성은 김용비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김용비는 의성 출신으로, 지역민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난적亂賊을 물리치는 공적을 세웠으며, 또 지역에 뼈를 묻었다. 이러한 사실은 혈통을 넘어 모든 후대인들의 귀감龜鑑이 될 만한 행적이며 보편적 가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증가를 창시한 불천위不遷位 조상 역시 청렴을 바탕으로 청백리에 녹훈되고, 자기희생적 태도로 백성을 사랑하고, 효심이 지극하여 효행자로 칭송받는 등 훌륭한 덕성에 의해 지역사회의 사표師表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불천위 인물은 가문의 후손은 물론이고 지역민들의 존송을 받는 대상으로 거듭나고 있기도 하다.⁴⁷⁾ 예를 들어 퇴계 이황의 불천위 제례에는 혈통과 학맥을 뛰어넘어 지역에서도 참사參祀하고 있다. 이처럼 퇴계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민들이 퇴계를 찾는 까닭은 그의 삶과 정신을 본받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1989년 오토재 정비사업의 완공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오토재는 종친들의 끊임없는 순례지巡禮地로 훌륭한 교육의 산실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⁴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로 볼 때 후손들 역시 진민사가 자리한 오토재五土齋를 단순히 혈통의 뿌리를 간직한 장소로서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을만한 정신문화를 간직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민사가 특정 가문과 혈통을 넘어 지역의 공공유산으로 거듭나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47) 김미영, 「불천위 제례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역할」, 『영남학』3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55~56쪽.

48) 『義城金氏 五土山誌』, 오토산지 편찬위원회, 1989, 325쪽

※ 이 논문은 2017년 8월 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9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禮記』

『國朝五禮序例』

『龜窩先生續集』

『懶齋集』

『大山先生續集』

『東岡先生文集』

『晚山文集』

『西山先生文集』

『臥溪文集』

『重齋先生文集』

『拓菴先生文集』

『退溪全書』

『五土齋舍攷遺錄』

『義城金氏 五土山誌』, 오토산지 편찬위원회, 1989.

『安東의 書院 享祀』, 안동민속박물관, 1996.

권삼문, 「향사의 역사와 구조」, 『역사민속학』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김미영, 「불친위 제례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역할」, 『영남학』30, 경북대학교 영남 문화연구원, 2016.

김미영, 「서원 향사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 『국학연구』22, 한국국학진흥원, 2013.

김미영, 「조선시대 유교의례의 사회적 기능과 상징적 의미」, 『국학연구』14, 한국국학진흥원, 2009.

김미영, 『학봉 김성일, 충군애민의 삶을 살다』, 예문서원, 2016.

송공섭, 「이퇴계의 서원교육론 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화』2, 경북대학교 퇴계학 연구소, 1974.

유홍렬, 「조선 사묘祠廟 발생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회사상사논고』, 일조각, 1980.

- 유홍렬, 「조선에 있어서의 서원의 성립」, 『한국사회사상사논고』, 일조각, 1980.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제례와 위치」, 『진단학보』90, 진단학회, 2000.
- 이범직, 「국조오례의 속에서 사대부 제례(時享禮)의 위상」, 『유교사상문화연구』 16, 한국유교학회, 2002.
- 이병훈, 『경상도 書院 · 祠宇의 건립추이와 제향인물의 성격』,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수환, 「경주 세덕사 연구」, 『민족문화논총』4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 이은정, 「18세기 후반 무안 병산사의 건립과 무안박씨」, 『지방사와 지방문화』 11-1, 역사문화학회, 2008.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한재훈, 「퇴계의 서원향사례정초에 대한 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화』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Abstract

Historical Cultural Value and Ritual Character of Jinminsa Shrine in Uiseong

Kim, Mi-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review historical cultural value and Ritual Character of Jinminsa Shrine of Oto Mountain, which is a family shrine of Uiseong Kim Family.

Jinminsa Shrine is located on Oto Mountain in Tohyeon-ri, Sagok-myeon, Uiseong-gun. The enshrined person is Yongbi Kim, the second progenitor of Uiseong Kim Family. During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he lived in Uiseong and was held in high esteem by residents for successfully suppressing a riot. Jinminsa Shrine is a shrine constructed to admire his achievement. Since the achievement of Yongbi Kim at the time saved the entire nation from crisis beyond regional community, Jinminsa Shrine was considered as an elite shrine based on regionality. This is also shown by the fact that Jinminsa Shrine was built nearby the government office of Uiseong-eup.

Jinminsa Shrine was repeatedly repaired and rebuilt because of ruining and fire. After the demolition of Jinminsa Shrine in Uiseong-eup with the lecture hall demolition order in 1868, it was rebuilt on Oto Mountain. Ever since this time, Oto Mountain became a symbolic place for Uiseong Kim Family beyond simple natural landscape. During this process, the hegemony of Jinminsa Shrine was gradually shifted from

the community to Uiseong Kim Family. This shift started in the 16th century when the neo-Confucian family consciousness began to settle in. In other words, with the increase of family consciousness, descendents paid greater attention to the origin of the family and showed efforts to gain the hegemony of Jinminsa Shrine. On the other than, residents of Uiseong-eup also started to recognize Jinminsa Shrine as a private shrine of a specific family without regionality.

However, Yongbi Kim the person enshrined at Jinminsa Shrine lived in Uiseong, risked his life to protect residents by defeating rioters, and died in this place. His deeds present a role model to future generations and a universal value to be pursued by all, not limited to a specific family. In this sense, Jinminsa Shrine and Oto Mountain where Jinminsa Shrine is located are not simply places for a family but have value and meaning as places that keep the exemplary spirit and culture for modern people. This is the reason why Jinminsa Shrine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cultural heritage of the region.

key words : Uiseong, shrine, confucian school, lecture hall, squire, family